

2017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에 있는 생명에 대한 핵심적인 계시

메시지 9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성경: 창 2:7, 요 20:22, 딤후 3:14-17, 겔 37:1-14

- I.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분의 단체적인 나타남을 위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갈망하신다 — 요 1:1, 14, 딤후 3:15-16, 딤후 3:16-17.
- A.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 창 2:7.
1. 사람의 몸 안으로 불어넣어진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 되었다 — 잠 20:27, 욥 32:8.
 2. 사람의 몸 속으로 불어 넣어진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매우 가깝다 — 비교 창 2:8-9.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사이에는 전달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 롬 8:16, 고전 6:17.
- B.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거룩한 공기(뉴마)를 받으십시오.’” — 요 20:22 (직역).
1. 거룩한 공기는 성령 혹은 거룩한 숨이다.
 2. 요한복음에는 ‘말씀’, ‘육체’, ‘숨’이라는 놀라운 세 단어가 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사람이고 숨은 그 영이시다 — 요 1:1, 14, 20:22.
 3. 말씀은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기 위한 거룩한 숨이 되셨다 — 요 1:14, 29, 고전 15:45 하, 롬 5:10, 10:12-13, 비교 애 3:55-56.
- C.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 딤후 3:16 상.
1.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 또는 호흡이다 — 요 6:63.
 3. 이와 같이 성경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다. 그러므로 마치 인(隣)이 성냥의 본질적인 물질인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성경의 본질이며 실질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 말씀의 그 영과 마찰시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한다.
- D.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그 영을 계속해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해 들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딤후 4:7, 갈 3:2, 엡 6:17-18 상.
- II. 교회의 하락에 대한 신성한 예방접종을 위한 항생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하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성경이다 — 딤후 3:14-17.
- A.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이 호흡은 그 영이고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 — 요 6:63.
1.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생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들이쉬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쉬는 것이어야 한다 — 행 6:4.

2. 우리는 하나님을 들이쉬기 위해 영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내쉬기 위해 그 영이신 말씀을 공급해야 한다 — 엡 6:17-18상, 행 6:10, 고후 3:6, 비교 시 119:130, 133, 140.
- B. 하나님의 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며 우리의 편에서 성경은 네 방면, 곧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호흡을 받기 위한 것이다.
1. 가르침은 계시와 같다.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너울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다 — 엡 1:17, 3:9, 비교 욥 10:13.
 2. 책망은 우리가 본 계시에서 온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과 죄들을 깨닫는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부인하게 된다 — 사 6:1-8, 욥 42:5-6, 마 16:24.
 3. 바로잡는 것은 책망을 뒤따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어떤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 마 7:13-14.
 4. 의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낸 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신성하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신성하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 빌 3:9.
- C.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호흡해 내신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하게 되고 충분히 준비되는 것이다 — 딤후 3:17.
1.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요 1:13, 벰후 1:4),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하나되어(고전 6:17), 그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2.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것은 하나님-사람들을 산출한다. 우리는 계시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받기 위해 기도로 성경을 읽음으로 계속해서 삼일 하나님을 들이쉬어야 한다.

III. 하나님으로 조성되기 위해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기 위해 그 영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한다 — 엡 6:17-18상.

- A. 사탄은 다만 우리 밖에 있는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적인 대적을 처리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해야 하며, 성경의 항상 있는 말씀에 대해 기도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를 위한 그 영의 즉각적인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요 6:63, 엡 5:26-27, 계 2:7.
- B. 검과 그 영과 말씀은 하나이다. 성경에 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 즉각적인 말씀(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영께서 그 순간에 적용하여 하신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대적을 죽이는 검인 그 영이다 — 히 4:12.
- C. 우리가 영 안에서 온갖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더욱더 죽임을 당한다. 결국 몸의 원수, 곧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악한 적인 자아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 비교 계 1:16, 2:16.
- D.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에 의해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온갖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기도로 읽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은 승리하신다.
- E.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영적 항생제인 죽이는 검이 되는 그 영인 말씀을 받음으로 교회 생활과 사역 안에서 보존되어 건강한 몸의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살 수 있다.
- F. 이기는 이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항상 그분께 나옴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럴 때 주님은 이기는 이들 안에서 분배하시는 영이신 적용된 말씀이 되실 수 있다 — 계 3:8, 요 1:1, 5:39-40, 6:63.
- G.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영으로 충분히 조성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와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죽이는 검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단체적인 사람이 된다 — 계 2:7, 22:17상, 19:13-15, 살후 2:8.

IV.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은 호흡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결과 우리를 한 군대로 편성되고 단체적인 한 몸이 되게 하시니 이를 계시한다.

- A. 마른 뼈들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러울 뿐 아니라(겔 36:25), 여러 가지 죄악되고 세상적이며 종교적인 것들의 '무덤' 속에 죽어 있고 매장되어 있었음(37:12-13)을 보여 준다.

- B. 우리는 죽고 마른 뼈들과 같이 해체되고 흩어져 있었으며, 하나가 없었다.
1.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었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난 믿는 이이었든지,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많은 형제자매들도 다시 살아나서 죽음과 그들의 무덤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다.
 2.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들과 분파들과 분열들과 독립 단체들과 여러 운동들이라는 무덤들 속에 매장되어 있다.
 3.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무덤들 안에 있으면서, 죽어 있고 메마르고 흩어져 있고 해체되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죽은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 요 5:25, 엠 2:1-8.
- C. 에스겔서 37 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신언은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말해 내고 선포하는 문제이다 — 겔 37:4-5.
1. 에스겔이 말해 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 영을 주셨다 — 겔 37:10, 14.
 2. 성경에서 신언의 주된 의미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말해 내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 a.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 고전 14:4 하.
 - b.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고전 14:31.
 - c. 신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여 하나님을 말해 내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교회 집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며, 집회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전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 고전 14:24-25.
 - d. 신언하는 것은 우리를 이기는 이가 되게 한다. 신언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기능이다 — 고전 14:3, 4 하, 비교 마 16:18.
 3. 에스겔이 신언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불어오고 계셨으며, 바람과 숨과 그 영을 보내고 계셨다 — 겔 37:4-10, 14.
 - a.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에스겔서 37 장 5 절부터 10 절까지와 14 절에서 '바람'과 '숨'과 '영'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 b. 영적인 체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실 때 그분의 숨은 바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람을 들이마실 때 이 바람은 숨이 되고, 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 영이 된다.
 - c. 에스겔이 신언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부셨고, 사람들은 숨을 받아들였으며, 숨은 그 영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 고전 15:45 하, 고후 3:6.
- D. 교회 집회에서 신언하는 것(주님을 위해 말하고 서로서로의 안으로 주님을 말해 내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는데, 이 예언은 바로 (극히 큰 군대로서 하나 안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 마 16:18, 고전 14:4 하, 겔 37:4-10.